朝鮮日報

朝夕刊合六面

購讀料 (朝夕刊)一箇月 金一圓 三個月先金 金二圓九拾錢 六個月先金 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壹圓 ... 八拾錢 ... 指定料五號每一行參拾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金亨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沈滯한出版界
新事業家의出現을渴望

一

將來의文化를支配할것은 무엇보다도 書籍 新聞 教育이되리라하는 現代文明批評諸家의말을 빌지안트라도 이세가지것이 現代生活에잇서서 文化의反映인것은 多少間見識이잇는사람으로는 누구든지알수잇는것이다 그런데書籍이란一般出版界의所產이다 그럼으로어느社會의出版界의現況은적어도 그社會그民族의文化現狀의一面을表現하는것으로 볼수잇스니穩健着實한傾向이 보이는社會에잇서서는 그社會그民族의文化中心이 그러한穩健着實한곳으로기우러지라는것을 알수잇스며 放縱淫逸한傾向이잇는社會에잇서서는 그社會民族의思想이 淫逸 放縱한傾向을가지게될것을. 알수가잇다 그러면朝鮮出版界의現狀은엇더한가 一一히들어말할수업슬만큼墮落하고 沈滯하엿다

二

朝鮮은特殊한事情下에잇슴으로 出版界의現狀그것으로써바로그것을將來文化의指向할一面이라말함은勿論速斷이다 그러나 一般出版界가 現在의文化가 그만큼沈滯한것으로는 볼수잇슬것이다 이와가티沈滯不振한데는 여러가지原因이直接間接으로잇슬것이니 첫재一般民衆의敎養程度가 그러한讀書를要求치안는것 또는要求는잇스나生活經濟가此에不伴하는것 出版業者가目前의小利에만汲汲하는것 一般企業家가 이事業을等閑視하야 投資치안는것等 여러가지가서로有機的關係를가지고一般出版界를委靡不振한곳으로 몰어드린것이라할수잇다

三

그러나모든原因을 羅列하야 나에게몰리어 가장責任잇는匡濟策을請求한다면 現下出版界에當面한 直接責任者인一般出版業者의 猛烈한反省을 促치아니할수업다 教育家와論客의社會的地位가 特殊한것가티 出版業者도社會的으로 重大한使命을所有한것이니ㅡ社會의先覺者가되고 讀書者가되고 指導者가될만한 識見을가질것은勿論이오 此를爲하야獻身할만한奉公心이잇서야할것이다 다시一步를進하여는新世紀가을準備―第二, 第三大衆의要求하는思想이라든지 傾向가튼것을洞察할遠識力이잇서야할것이다 그러나現今朝鮮出版界에잇서서는이것이한妄斷이라 아니할수업다

四

文化의三大方의一인新聞이나教育에當面한責任者가小利에走하여서는안될것을 意識한것만콤 朝鮮의言論界나教育界에는社會奉公의標榜도볼수잇고實際의貢獻도잇지마는 出版界만은完全히商業化한그것만콤한 標榜도實際도 도모지볼수업다 戀愛書簡이나 痴情小話만을 刊行하여 血氣未定한靑年男女의春情에 衝動을주는것으로써 出版業者의任務를다한다면 이에더큰誤謬가업슬것이다 書籍을商品으로와는營利以外에 더큰使命이잇슴을알어야할것이다 우리의貧弱한出版界를爲하야 크게슬퍼하는바이다

五

이러한惡傾向을 改革하려면 여지금와지斯界에從事하여온 여러出版業者의反省도 勿論必要하거니와 우리가教育이업서서는안될것을알고 全財產을傾하여 此에貢獻하는教育者가 多數히생긴것가티 言論機關의必要를늣기고 文化朝鮮의文化的樹立을爲하야 物質과精神을犧牲하는社會人들이 나온것가티出版界에도資力과學識을가진新人들의出現이 무엇보다도必要로한다 新事業家의새로운着眼을바라는바이다

二千便衣隊 命令一下에天津占領
準備整頓、時期苦待

(天津廿五日發) 天津을奪取하려는計策으로便衣隊本部는最近某租界內에設置되엇는바本部의命令一下에二千名을集中할準備를整頓하고時期到來를기다리는中인데此에對한防備를할中國軍隊와警察은合二萬人이잇스나一般市民은便衣隊가成功할可能性이充分하다고觀測하더라

『日山東派兵과 南中經濟絶交로 日本政府는頭痛』

(東京電) 北中戰局은全혀停頓狀態를呈하야山東方面도孫軍敗兵이逼入함에不拘하고平靜하며一方長江側의排日運動은畢竟其形勢가猛烈하게되어못처럼長江沿岸의靜穩과共히復活한日淸汽船의定期航路에伴하야次次長江貿易上가장憂慮할바이라하야日本의官民은共히排日의口實인山東派兵을엇더케던지處置치안흐면안되겟다고하며또한政府도萬若이대로日字만보낼것가트면撤兵의時期도 失할憂가잇서서相當煩惱하는貌樣임으로東方會議의劈頭에山東派兵의撤兵時期에對하야서도協議할터이더라

蕪湖서도經濟斷交

(東京電) 某處着電에依하면蕪湖의各團體는南京政府의命令을바더對日經濟斷交決議를하야二十五日以後에此決議를實行할듯한데排日氣勢는次第로沸騰되는模樣이더라

各國態度極冷情
元帥就任通告에

(北京廿五日發) 外交部의張作霖大元帥就任通告에對한日本의回答은今日送達되엇는데그內容은通告書를受取하엿다는것만으로極히簡單히回答하엿다和蘭,獨逸,白耳義도同樣으로簡單히回答하엿는데列國은關係치안는態度를取하리라더라

沙面事件紀念 盛況裡에終了

(東京電) 某所着電에依하면廣東에서는六月二十三日沙面事件紀念日에當하야排英示威運動을하엿는데三萬餘의群衆이集會하야盛會를極하얏더라

長江貿易恢復
六十萬圓支出

(東京電) 中國長江側의日本貿易恢復과日人復歸問題善後策에對하야는曾往부터外務省에서立案中이든바二十七日開會인東方會議에附議하기로되엇다右에對하야二十三日歸國한高尾漢口總領事는詳細히出淵次官에게報告하고午後二時半부터芳澤公使、出淵次官、矢田上海總領事、木原亞細亞局長 等이參集協議한바가잇섯는데長江縣에서撤歸한日人이다시店舖를開함에는約二千三百萬圓假量의救濟資金을要할터이나日本政府로서는結局六十萬圓假量限度로支出하려고目下外務大藏側에서交涉中인바右를決定後一應閣議에附議하야大概는責任支出을하게될터이더라

民政黨首問題 依然未定

(東京電) 民政黨은濱口氏를黨首에推하고若槻床次兩顧問等이一致하야此를輔佐後陣容이整備된듯이보이나自身이陣頭에서不少하다하야黨內에서는秘密히對策에腐心한다即本黨系는床次氏를表面에내세울時機가速히오기를期待하고舊憲政會系는濱口氏가當分陣頭에立하지못할때에는床次氏에게黨首가돌아가지안흘수업는情勢에잇는處地로보아各方面으로有力者를物色하기에苦心하고一部는朝鮮總督代理宇垣大將을推戴하려고劃策하며川崎克氏와如한者는前陸軍參與官의緣故를利用하야今番秘密히渡鮮하야頻頻히宇垣大將의意를動하려고努力한다 勿論宇垣氏는將來朝鮮總督으로內定되엇슴으로이에誘惑될것가티보이지안흐나此一派의運動은今後相當히熱心으로進行할貌樣이더라

東方會議
廿七日開會

(東京電) 東方會議는二十四日森外務政務次官이腰越에가서療中의首相과協議한結果首相은二十六日午後에東上할터임으로二十七日午前十一時外相官邸에開會하고爲先田中兼外相의人事와各委員의口頭또는文書의議案提出이잇슬터인데이諮案에對하야木村亞細亞局長이幹事長이되어中村亞細亞局第一課長村井通商局第一課長谷書記官이幹事가되어各分科會의配屬을定하고正午午餐을共한後散會하기로되엇더라

全朝鮮‖辯護士大會議案
廿六日부터公會堂에서

一、辯護士規則을改正하야日本辯護士法과同一內容의規則을爲하야特히懲戒制度의規定은急速히此를改正하기를바랄事(日辯)
一、朝鮮辯護士의懲戒裁判의制度를設置할事(鮮辯)
一、刑事令中刑事訴訟法에對한特例規定은此를廢止할事(鮮辯)
一、刑事令第二十七條의削除는當局에建議할事(咸興)
一、刑事令第十三條十五條二十七條를削除할事(平壤)(日辯)(公州)
一、保安法大正八年制令第七號集會取締令을廢止하고新聞紙法及出版法을改正할事(鮮辯)
一、保安法은此를廢止할事(平壤)
一、擾閙黨法及出版物에關한法令은此를改正하고言論及著作의自由에對한制限을緩和할事(平壤)
一、建物保護法、借地借家法을朝鮮에施行하고小作法을制定할事(鮮辯)
一、日本의建物保護法、借地法借家法을朝鮮에施行할事(咸興)
一、少年及家事의審判에付하야는特別機關을設할事(鮮辯)
一、檢事事務取扱의制度를速히廢止할事(鮮辯)
一、檢事事務取扱及司法警察官事務取扱制度를全廢할事(咸興)
一、單獨事件의控訴는所轄地方法院에서할事(咸興)
一、單獨事件에依하야判決된民事及刑事訴訟事件의控訴를地方法院本廳의合議部에서審理判決될것을裁判所令으로改正하기를總會에建議할事(釜山)
一、單獨事件의二審은地方法院의管轄로하는事를要望함(淸津)
一、朝鮮辯護士協會設立의件(日辯)
一、朝鮮辯護士協會를組織하고辯護士의習德向上並人權擁護의統一的方針을協定할事(咸興)
一、居住屆及居住地의印鑑證明手續을嚴密히하도록法令을改正할事(鮮辯)
一、民事令第十條、第二十八條第三十一條第一項을削除할事(全州)
一、民事令第二十條、第二十九條、第三十條를削除할事(公州)
一、裁覽法에規定치안흔事項에對하야는民事訴訟法을準用할事를規定하여줄事(全州)
一、官選辯護人에對하야는旅費日當支給方을希望한事(淸津)
一、中國間島領事裁判에屬한事件中裁判令에依한地方法院에屬하는民事會議事件을淸津地方法院의管轄로할事(淸津)
一、間島領事裁判事件에對한二審을淸津地方法院의管轄로할事(淸津)
一、朝鮮의制令制度를廢止하고法律制度를할事(咸興)
一、高等法院長의下級裁判所에對한指揮監督制度를廢止할事(咸興)
一、改正民事訴訟은全部此를朝鮮에施行할事(咸興)
一、銀行及其他의會社의重役並同事務員에刑法第一九七條同第一九八條를適用할法律을制定할事(咸興)
一、朝鮮在住의日鮮人에一般參政權을與할事
一、朝鮮의地方自治制의完成을速進할事
一、中樞院並道參與官制를廢止할事(咸興)
一、交通不便의處에在한地方法院은 交通便利의處로移轉할事(公州)
一、地方法院辯護士控所中增築又는新築할事(公州)
一、辯護士會費滯納中은登錄換申請을許可하지안흘事(公州)
一、辯護士로부터相當證明하야期日의變更辯論의延期를申請한境遇에는此를許可할事(公州)
一、地方法院管內判檢事會議잇는境遇에는所在地辯護士一同又는 代表者와懇談會開催할事(公州)
一、民事의期日指定은單獨事件을午前으로하고合議事件을午後로할事(公州)
一、官選辯護를要하는事件의期日은되도록指定前電話又는便宜의方法으로써辯護人에支障의有無를問한後指定할事(公州)
一、辯護士의訴訟代理又는辯護할事件은他事件보다되도록前에할事(公州)
一、辯護士는民刑事에對하야證人이된境遇는相當한旅費日當을給할事(公州)
一、證人日當의金額은各自區區으로써 都會地를除하고增할事(公州)
一、執達吏의事務所는裁判所內又는裁判所에近한所에設케할事(公州)
一、年年調査되는辯護士取扱件數及收入은他에漏하지안케秘로付할事(公州)
一、辯護士는事件의紹介者에對하야紹介料其他名義의如何를不問하고金品其他利益을給供하거나又는給供할約束을하지못하며犯하는者에는一定의制裁를科할規定을辯護士規則中에追加할일을朝鮮總督에建議할事(釜山)
一、司法實務上의要望의件
一、破產手續은現行破產法의精神에準하야其進行을迅速히計할事
一、假差押假處分假執行等에供託한保證金은相手方의連署잇는供託原因消滅의證明願에對하야는直證明을與할事
一、再度의缺席判決並第二審再度의雙方不出頭의取扱은當日繫屬審判의最後에할事
一、繫屬事件에對하야他地方으로부터의辯護士가出張하야來할時는交通機關의延着時間을考慮하는等便宜를與할事
一、僞證罪의檢擧를勵行할事
一、第二審에서는事實審의最終審임으로特히愼重한證據調를施行하고當事者로서充分滿足을與케하도록努力할事(大)(辯日)

二重搾取에우는 伽南金鑛의坑夫
三個月이나賃金도안주고 坑夫들의錢票를割引買受
日人鑛主의非行

慶北高靈郡雲水面佐藤周藏의經營인伽南金鑛에서는每日平均八十餘名의坑夫를使用하는데從來의賃金은每파수(十五日)마다支拂或一錢票를주어坑夫에게多少便宜를與하며坑夫全般에게貯金을奬勵하여賃金支拂時에는一圓五錢式의郵便貯金을取扱하여오던바今年爲始하여는工事에費用이만히든다는口實로坑夫八十餘名賃金을七파수(三個月半)가되도록一錢의支拂도안할뿐아니라달아서從來에주든錢票外지도發行치아니함으로단순히勞働賃金으로만連命하는그네들은錢票도업서돈한푼變通할길外지일허最後로貯金이라도차저쓸수밧게업다는窮境에切迫하엿슴으로取扱者奧野事務員에게말을하고通帳을차저貯金한金額을調查對照하여본즉三圓式의不足을生한이大多數임으로이에疑心한前記坑夫들은內容의調查外지한結果同事務員이밋처貯金을못햇다는口實로써爲先辯明한後裡面으로는그돈으로써坑夫들에게錢票를割引하여買收한事實外지暴露되엇슴으로一般坑夫들은同事務員의二重的搾取를敢行하는非行을非難하며감아賃金에對하여何等의말도업시눈을감아버리는怨聲이날로濃厚하여가서近日에至하여는最後로同盟罷業이라도해서이難治症의缺點을解決치안코는아니되겟다고怨聲이더욱높하간다더라

簿記學院設立
江陵城德面에서 六月二十日開學

江陵郡城德面曹圭常氏其外에有志의發起로簿記學院을設立하고는六月二十日午後九時半에城德靑年會館에서設立者曹圭常氏司會로開學式을擧行하엿다는데敎授는午前部(男子)午後部(女子)夜學部(男子)三部로分하야敎授하리라하며지금은事情上夜學部만開學하고講師는曹成專門學校商科를卒業한崔善行氏라하며現在學生數는二十五名이라더라(江陵)

維鳩靈蘭共販價

忠南公州郡維鳩靈蘭共販場에서는去十七日부터共同販賣를開始하엿는데廿一日外지의買入實數는二千一百四十一貫八百九十五錢이오支拂金額一萬二百五十七圓二十九錢인바廿一日의現場時勢는左와如하다더라(維鳩)
▲特等六圓六十二錢▲一等六圓○七錢▲二等五圓五十二錢▲三等四圓九十錢▲四等四圓四十二錢▲等外三圓三十錢▲屑二圓二十一錢▲玉一圓六十六錢

三陟郡汀羅靑年會設置
公園外지設置

三陟郡汀羅靑年會는創立되지아즉日淺하나地方開發及一般的事業에會員一同이團結하야忠實히努力하여오든바許穆先生이三陟府使로잇슬째에東海碑를撰하야顯宗辛丑에碑를汀羅島에建立한것이其後風浪으로因하야沈沒되엇슴을肅宗己丑에更히改刻하야竹串島에建設하엿다는傳說及傳說로有名한陟州東海碑(一名退潮碑)가今에至하여는廢朽된狀態에在한것을遺憾으로생각하고압흐로一般에게周知紹介코져碑閣이建立되어잇는六香臺를竹串公園으로設備하엿다하며非農民의無產子弟敎養을爲하야改良書堂施設과每年定期로夜學等을開講키로決議하엿다는바特히會長金淳默君은事業財源을爲하야金二百五十圓을投하야補佐指導함으로會員은勿論社會人士는金氏의自發的精神과會員의合致된熱誠에稱讚不已한다더라(三陟)

始興郡初有의 個人庭球大會
今廿六日午前十日부터 永登浦에서開催

本報始興支局主催의第一回全始興個人庭球大會는旣報와如히今廿六日午前十時부터永登浦驛前에서擧行하리라는데이것이同郡初有의盛事인만큼一般始興郡의人氣는沸騰되어잇스며이人士의同情도벌서부터遝至한바이제廿五日外지到着된義捐金은如左하더라(始興)
西面李淵晳五圓▲西面平始昌 南面趙重完▲北面金光浩各三圓▲西面 成健鏞 姜儀馨 崔好應 南面 後藤紋三郞 鄭明煥▲果川面 金洛彬 湯星煥各二圓△西面尹祉炳 金永球 南面梁在寶 果川面朴仁榮 李允明 吳順默 金宗植 北面金成煥 安允中 張三壽 金雲弘 金仁植 西二面李寫珪 趙漢九 東面李潤秀 黃命周 永登浦酒井氏各一圓

002711

雄基港에 勞働親睦會
去廿日에創立

雄基勞働親睦會에서는雄基市內에散在한勞働細胞團體를聯合하기爲하야各團體에通牒을發하엿다더라(雄基)

群山에도 少年軍組織
入隊式七月三日

오즉未來는少年에잇다는것은世人이肯定하는바에鑑하야群山에도少年軍의組織이되엿는바그의指導者로는尹榮鮮金昇鎬吳基泳甲鉉合李源衡諸氏라는데其間萬般準備가完成됨으로方今少年軍의顯習을每日敎養케되는바入隊式은七月三日이라고(群山)

城津郵便局新築

城津郵便局은元來日本人이만히居住하는 本町과幸町과의間에朝鮮人이만히居住하는旭町에서는만흔不便으로잇는바今般遞信局에서各地郵便局의改築及新築에달아城津郵便局도新築하기로되어二萬五千七百圓의巨額으로新築하게되엇는데其基地는城津의中央인地方法院城津支廳前으로方今工事에着手하여今秋落成豫定이라는바中央地에新築케된後에는一般의만흔便利를주리라고(城津)

三陟所達校昇格

三陟郡所達面에서唯一한子女敎養機關인私立所達學校는數個星霜동안英才敎育에만히힘쓰든바後援諸氏들은現下敎育制度에認定되는學校로만들지아니하면아니되겟다하야오래동안을두고學校昇格運動에努力한結果지난十六日附로所達公立普通學校로認可되야生徒一同과學父兄의歡喜는勿論이오一般社會에서도三陟敎育界를爲하야만흔期待를가진다더라(三陟)

忠淸南北道內 靑年運動者懇談會
來七月三日洪城에서開催

忠淸道內에散在한靑年運動者가會的이나마한번도同席에서會合하며靑年運動의根本方針을討議하여본일이업고이러한實現이업슴을달어道內靑年運動이全體에對하여微微不振한感이잇서서遺憾으로생각한洪城靑年會外四團體主催로來七月三日에忠淸南北道靑年運動者懇談會를洪城에서開催하게되엇다는데모든準備가整頓되어이미召集規定을道內各團體와및個人에게發付하엿스며參加資格으로는道內에居住를둔運動者로써所屬團體의會員證을要한다는데비록一時的懇談이나實로今番의모임은運動의轉換期에잇서서더욱意義가深長하다하며大盛況을일울것을豫期한다더라

參加規定
一、本懇談會에參加資格은忠淸道內에在籍又는現住한靑年運動者로所屬團體의推薦書와가티添付하여提出함
一、參加申請期日은六月三十日外지
一、參加申請所 洪城靑年會內

忠淸道靑年運動者懇談會準備事務所
一、會費 五十錢을當日에持參함을要함
一、懇談會 場所 洪城靑年會 時日 七月三日

懇談會規定
一、參加願接受後는本準備委員會의審査發表가有함
一、懇談會開催前外지一切發生한事件은本準備委員側에서實任을負하고臨時執行함을得함但靑年運動에有意하고아즉團體에在籍치못한者에게는當日에履歷書만을提出한後審査委員의許可를得함
◇主任團體 洪城靑年會 蟠蜂靑年會 提川靑年會 永同靑年會 合德靑年會

第三回計劃으로 大邱府市街整理
地方費補助를正式申請

大邱府에서는五個年間繼續事業으로施行하여오든第二回道路及下水道工事는本年으로써마치는바大邱에서도人家와其他가各方面으로膨脹하여짐을따라그대로放任할수업슴으로府에周回道路及將來電車敷設豫定線의擴張을計劃하고第三回計劃으로五個年間압흐로繼續事業으로써約九十萬圓工事費를要하는데이에對한費用은大邱府尹으로부터道當局에地方費補助廿二萬五千圓을申請하며또한國庫補助三十四萬五千圓을申請할것이며府에서三十三萬圓을負擔하야着手할豫定이라더라(大邱)

裡靑月例會決議
學務當局糾彈과其他

湖南線裡里靑年會에서는月例會를去二十二日裡里幼稚園內에서開하고朴榮珍氏司會로左記諸項의決議와會員感想談으로써閉會한後全南所安學校에對한學務當局의高壓的處置를糾彈키爲하야即席에서糾彈演說大會를開하고黃義準鄭牧林三諸氏의演說은一般聽衆으로하야금無限한感想을어케하자臨場警官의注意와中止로써閉會하엿다더라(裡里)

◇決議案
一、全南所安學校廢校事件에對하야는執行委員會의決議를承認하는同時에閉會現場에서當局糾彈演說會를開할것
一、來七月初에講演會를開할것
一、執行委員의順番日直하기로可決함
一、朝鮮民族斷髮을奬勵키爲하야本會에서在裡各團體와協力하야益山郡內有髮者의斷髮을着手實行할것
一、裡里射亭射員中靑年諸君의自省을促할것

淑明校盟休眞相(一)
同校學父兄會調查發表

淑明女子高普生徒盟休事件은벌서長時日間걸리어朝鮮敎育界에問題의焦點이되엇바이요 學父兄諸氏의心痛은더욱深切한바어니와 이제學校財團評議員側의「報告書」가이번事件의眞相을掩蔽하고無責任한實態를暴露한點이잇슴으로지난二十日學父兄大會決議委任에依하야不得已그事態의顚末과眞相이며및吾人의取한態度를聲明하오니照諒하시압

◇聲明書

一、盟休의原因과由來

生徒들의盟休事件은學界의不祥事이요또現下의弊風이다 그러나아모리生徒들의要求일지라도그것이正當한境遇에는되도록그意見을採用하는것이敎育의實效를드러내는데와밋眞正한意味로敎育의權威를세우는데必要한것이요다만敎權을口實로써는無理를行할바는아니다 이제淑明校盟休된要求條件을보건대

一、齋藤敎務主任의辭退
二、中島舍監의辭退
三、生徒待遇改善
四、朝鮮歷史先生改任
五、朝鮮人先生採用增加
六、人格先生正當待遇

의六個條이다 齋藤先生은敎務主任으로서實際에校內行政을마음대로하게된者이다 大正十四年冬期에就任한以來今日外지아즉生徒間의信望이不足하엿섯고 그의日常言動은人種的偏見을가지고往往輕侮하는態度를가짐으로 生徒間의不平不服은날을닷아쌓이고하갓섯다 뿐만아니라朝鮮人家庭의主婦될사람들의教育이란本意를無視하고녀자의萬事를日本化本位로하는同時에敎育機關에잇서서가장滋味롭지못한派爭的暗鬪를일으켜日本人敎員中에自己의感情에合지안는者이면그의能力잇는生徒에對한信望如何를不計하고恒常排斥하엿스며情實의關係로써新教員을採用키로하야自然校內의空氣가平穩치못하고生徒外지도漸漸不安中에잇섯는것이今番盟休事件發生의原因이다 最近의實例로만몃가지를들건대朝鮮敎務員인朝鮮人先生을前後數次나免職케한後學校로서朝鮮歷史廢止說을발케하고朝鮮教員을外지입밧게내엇스며또지금外지當局舍監은朝鮮教員으로하든것인데그도日本人으로써하야人情風俗이아모리해도서로다른生徒들은不便과不滿을늣기게되엇섯다 그리고모레는偶然인지故意인지佐佐木某氏로하여곰全校生徒에게結婚할것을宣傳가티말하여왓섯고主任은女生들에게각각日本人과結婚하라고外지勸誘하엿다 이러한가지事情이純眞한妙齡의女生들에게결지라도漸次甚大한不安과不平을길러주어서師生間에가장貴重한信賴、敬服의念은全혀엄서지게되엇다 獨立인一個女子學校로서日本人事用의私有物과가티만들어서及其他舍監과朝鮮敎務教員外지日本人으로대신하고社會一般으로『淑明學校卒業生과 結婚하려면洋服生活이나日本式家庭生活을부터해야한다』는嘲笑를밧게하고淑明女學校는『日本과結婚식히는仲介所라』는批難外지듯게되엇다 더욱이現今日本人知名者와結婚한同校卒業生이七人이나잇는事實이種種想起하는批難이커젓고 女生들의安心을할수업섯다 여기서雜婚問題의政治的意義는別問題로하고도先生되는者로서妙齡의女生들에게政略的인結婚說을鼓吹하는 것이不可한것은常識잇는者로는누구든지判斷할바이다 齋藤氏는自己에對한生徒의不信이큰것을짐작하고今春四學年生에게對하야『敎務主任은누구로써하면適當하겟느냐』라는作文課題를내엇스나齋藤氏가그의適任이라고答案을쓴女生은一人도업서지안케失望하엿다하거니와生徒盟休의實任을全혀當局에게推諉하려는것은極히不當한일이다 中島敎員은일즉京城某私立女學校에在職中老齡이요또敎授에不充分으로不得已辭職하게되엇슴니다 그個人에對한問題는別로하더라도採用하야生徒들의不便、不滿을일으킴을지라도그를다만情實關係로써도두는것은도正當하다할만한理由가업다 生徒待遇改善問題는前記諸事實을綜合하야보면自然할것뿐아니라女生들로써도人間的으로그權威를要求하는것은도不可하다할理由가조금도업다 人格先生正當待遇는前記한派爭的暗鬪로因하야信望잇는敎員이無故히淘汰或은冷待되는것을볼때에또한그天眞한希望에서소사나오는것이요言을要할것이다

安東靑年會 演劇歌舞大會
大盛況裡에終幕

慶北安東靑年同盟演藝部에서는第一回公演을去二十二日夜八時에當地金永和家에서興行케되엇는데正刻前부터入場者는大多數에達하얏는바正刻이되자拍手소리와한가지管絃樂으로부터「푸로그람」이進行되어第一幕이열리자網紗帳幕속에서다섯少女의舞蹈는幕뒤에서울려나오는獨唱과한가지調和되어滿場人氣는蕩蕩한中에서花形의一幕의無言劇과 ... 社會人情劇『放浪兒』의全三幕과『新長恨夢』이라는喜劇一幕이잇슨後安東女流樂壇에名星인金鳳 ... 以上의大盛況裡에同十二時閉幕하엿다 더라(安東)

大同江沿岸調査(三)
平壤을中心으로
平壤特派員 金澤植

三、德川郡

陶令浦=는德川郡蠶上面陶令里의中央에在한데 德川郡价川順川三郡의交叉地點으로 東北은山이둘고 西南은大同江에面하얏다 平壤을距하기水路三百里인데 平壤으로부터溯上함에는十五日間 洪水時에는二十日이며 流下에는四日間(洪水時에는二日)을要하며 運賃은溯上四十圓 下五十圓이다 重要한產物(附近三十里以內의地域을含한者)은 스레ー트(盖屋板石)五萬貫 大豆二百石 粟百石 牛皮一千三百三十斤 生梨二萬五千貫이오 乾繭六百石이오 最近一年間에移入된貨物은鹽三萬叺(六百圓)石油五十箱(四百五十圓)이며移出된貨物은大豆四百石(四千八百圓)雜穀三百石 果物五千貫 木炭五百貫 粟二十石 松葉五千束等이다그리고主要한商人은金元俊 尹鳳道 白道熙 任禰道等이며 商船은二隻이有하다

大師港=은德川郡蠶島面大師里南方에偏在한浦口인데 平壤을距하기水路三百五十里이오 人口는九百九十四人(一六七戶)이며 附近一帶는平原曠野인데 南에는孟山가는二等道路와通하고 東에는北倉으로부터德川邑에通하는 三等道路를連하얏다 平壤과의中間에一航行의所要日數는 上二十日 下六日이며 運賃은上五十一圓 下六十圓이오 淺灘은
虎灘(德川郡沙屯市前)
洞落灘(价川郡東面松洞前)
嵐哥灘(順川郡鳳鳴面安村前)
沸流灘(順川郡北倉面北倉市前)
五灘(同慈山面渭津江)
破大灘(同郡仙沼面繁山前)
達疑灘(成川郡丫貝市前)
師兀灘(江東郡晩達面悅湢市)等이有하다此浦口附近의 主要產物은 年產額大豆二三三四石 粟四九八一石 大麥四六七石 小麥七三四石 粟八○石 繭三五○石이며 重要移出貨物은 米五○石 大豆一千石 雜穀五百石 果物一千貫 葉煙草八一四七五貫 木材五○○尺締 栗百石 木炭五千貫 牛皮二千斤이오 移入貨物은綿一千貫(二千圓) 石油三千箱(一七二○○圓)海藻二千貫(一萬五千四百圓)麥粉一千六百貫(一千六百圓) 紙類三千二百貫(六千四百圓)金屬器類九千百貫(一萬十圓)鹽十九萬五千貫(三萬九千圓)魚類二萬一千六百貫(三萬二千四百圓)砂糖五十俵(一千八百五十圓)綿絲五千玉(三萬圓)綿布一萬六千疋(六萬四千圓)陶磁器二萬個(四千圓)日本酒二十石(二千四百圓)麥酒百箱(一千九百圓)세멘트百樽(千圓)叺籠十枚(一千二百圓) 家具百個(五百圓)洋鐵五千打(一千二百圓) 成陽五百箱(五千百圓)고무靴一萬足(一萬圓)煙草七百箱(三萬五千圓)其他等이며 主要商人氏名은孟山郡玉泉面北倉里趙元祚、李寶夏、李泰等諸氏이다

四、价川郡

無盡峯=東北은山岳이重疊하고西南은平坦한데大同江은바로中部를返하얏다 大槪舟揖의便이良好하야船舶出入이頻繁한데戶數八十二(人口는四二七)며 重要商人은 三所里金俊龍金熙洙盧廷鳳等이다 平壤과距離는水路로二百里인데 一航行에溯上은日流七下는 四日間을要하며運

鐵湖少年庭球會
烏山사ー괴主催로開催

京畿道烏山사ー괴靑年同盟主催와本報烏山支局、烏山商會、商新社等의後援으로來廿六日에第二回鐵湖少年庭球大會를例年과가티烏山公普校第一코ー트에서開催할터인바參加選手는大畧左記와如하다더라(烏山)
申請場所 烏山사ー괴靑年同盟舘
申請期日 六月二十五日外지
選手資格 五尺四寸
參加金 一組五十錢式
抽籤期日 六月二十六日午前九時半

三陟南川橋架設
理想的으로近日落成

三陟交通上一大頭痛거리인五十川은元來急流로夏季가되면洪水의氾濫이만흔外닭에年前부터巨額의金으로數三次橋梁을架設하엿스나一年이못지나서破壞되엇슴으로夏季通行客에게만흔不便을주든바今般一萬四千圓이라는巨額으로五月初旬에起工하야石灰와鐵片으로理想的鐵橋를架設하는中인바近日落成되리라더라(三陟)

永興靈蘭共販價

咸南永興에서는年例대로去二十二日부터共同販賣를開始한바本郡內에共同販賣所在地及去二十二日現在의靈蘭價格은左와如하다고(永興)

◇共同販賣所在地
永興邑內 鎭興市 宣興面城里 耀德面龍泉里 橫川面大邱里

◇價格表

等級	對生繭一貫	對乾繭一斗
特等	六、四六	五、四九
一等	五、九二	五、○三
二等	五、三八	四、五七
三等	四、八四	四、一一
四等	四、三一	三、六六

李校長의特志 京畿道金浦

金浦公立普通學校에서十餘星霜을掌하야兒童敎育에熱中하든李敎承氏는昨年六月二十一日에長湍郡渭川公立普通學校長으로榮轉되엇는데氏는滿一週年인今年六月二十一日을當하야多年間勤務하던金浦公立普通學校生徒五百名에게鉛筆一個式을分給하얏다는데一般學父兄及生徒는李校長의特志를感謝한다더라(金浦)

●黃海道道立醫院落成式 黃海道道立醫院舍의新築工事는昨年六月十五日부터着手하엿든바昨年末에至工事의九分假量이竣功되엇슴으로舊病院舍로부터全部移轉하고以來에남어지의第二倉庫와其他의工事의竣頭中이든바지난三月末日로써全部가竣功되엇슴으로去二十日同病院舍落成式을同院舍廣庭에서盛大히擧行하엿다는데同院의總工費는十萬六千八百九十圓이라고(海州)

죽엄으로發露되는 現下朝鮮의社會相

죽엄도가지각색이잇것마는날로 자살횡사가만흔우리조선의금일

推此하면其他可知

남이잇스면죽음이잇는것은자연한리치라생사에대하야별로이상히 여길것이업것마는 혹은병으로자긔의명대로죽는이도잇고 혹은주위환경에 몰닌바되어 자살하는이도잇고 혹은횡액으로죽는이도잇서 한가지죽엄이언마는그내면에가지각색으로 쉬어잇는리유를 볼때에는그사회가엇더한것을짐작할수잇다 아! 조선의사회! 고통만잇고 향락이업는 우리민족의날로생기는 죽엄이야말로 듯기만하야도소름이끼칠죽엄이 만하서그런조문이우리의귀에들리울때마다공연한설음이북바치지아니할수업다 이제각색의죽엄을 종합하면놀에와갓다

父讎갑기爲해 亂打後投江

인부오륙명을다리고가서 싸리고배에대워다가던저

酸鼻할殺人

지난이십일오후륙시에 김포군대곳면대명리(金浦郡大串面大明里)압바다에서 듯기에도소름이끼치는 악착스런 살인사건이발생되엇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이제그내용을 알아보건대 지난십구일 오후한시경에 전긔대명리 김긔석(金基錫)의 술집에서 동면대벽리십사번디(同面大碧里)에사는 김진청(金振聲)과 인천부사뎡십구번디(仁川府寺町)에사는 주행도(朱行道)(三七)사이에 자전거로사람을 치이고도 아모사죄가업다는 감정으로 싸움이시작되어 피차에 구타까지하다가 동리사람들의 제지로 싸움은 중지되엇섯든바 그이튼날인 이십일에 전긔주행도의아들인주룡규(朱龍圭)(三○)가 그사실을듯고 강화군량도면 가릉포(江華郡良道面嘉陵浦)에서수리공사(水利工事)일꾼 인부오륙명을 다리고 전긔대명리에와서 그전날에 자긔부친을 따리엇다는 혐의로 전긔김진청을찾다가 마츰김씨가 엇더한볼일로 대명리에서 약십리가량되는 건너편 소렴이라는섬(島)에간것을긔회로주룡규의 일행륙명이배를타고김씨의잇는곳에건너가서 김씨를맛나 현장에서 여럿이덤비어 무수히란타하다가 오히려 부족하야 김씨를붓들어배에다실고대명리를향하야 돌아오는중도에서 배닷줄로 김진청을동이어물속에던저그와가티죽인것이라는데시톄는아직도발견치못하얏다더라

被殺者遺族 復讐코저또殺人

죽은이의가족이몰려가서 동민의응원을바다또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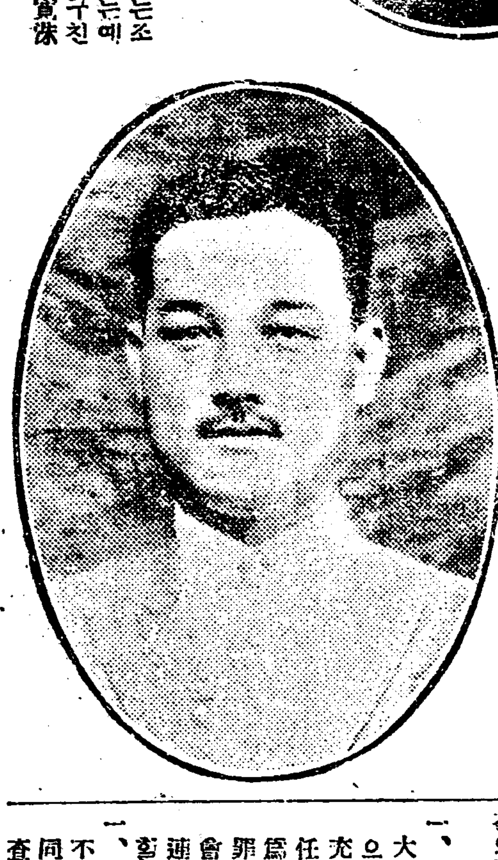
現場은宛然戰時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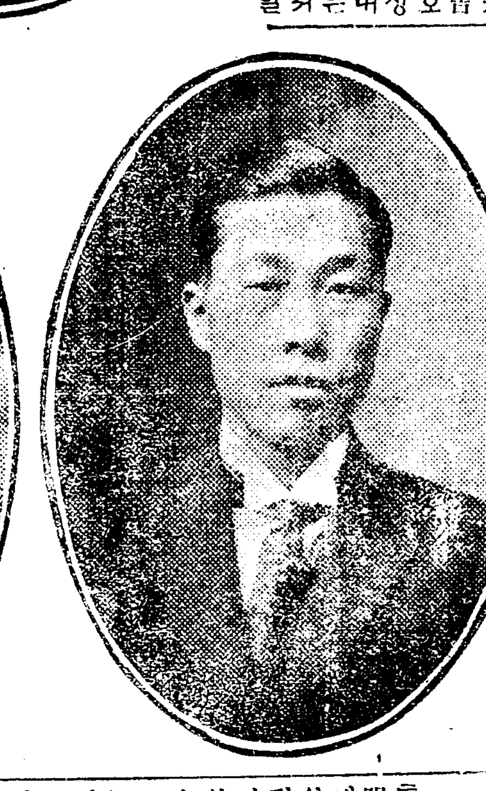
김진청이가 참살을당하얏다 함은변이사실과갓거니와불의의비보를들은 그의가족들은 동야열한시경에전긔가해자들이류숙하든대명리김긔석(金基錫)의집으로달려가서 부근주민들의응원을바다 가지고 전긔가해자주룡규외다섯명을 전부결박을 지은후전후사오시간동안에밀으기까지곤봉으로 란타한결과 인천부사뎡(仁川府寺町)사는 김근수(金根守)(四三)는 군중에게 포위되어현장에서 타살을당하고 인천부송림리(仁川府松林里)하익선(河益善)(三○)동사뎡(同寺町)량윤식(梁允植)(四九)동소(同所)주덕형(朱德亨)(二○)주룡규(朱龍圭) 강화군길상면(江華郡吉祥面) 고순복(高順福)(二○)등오명은 중상을당하얏슴으로 현장은 마치전시상태를 일우어근래에듣는일대참극을연출하얏다는바이급보를접한소관김포경찰서(金浦警察署)에서는지난이십일일에도변형사(渡邊刑事)이하경관수명이현장으로급행하야사건을됴사하는일변량방의관계자십여명을 검속하야동서에서 방금엄중취됴중이라하며 중상자 륙명은인천으로보내어입원케하얏다더라

仁川檢事出動

별항살인사건에대하야경성디방법원인천지텽 검사국(仁川支廳檢事局)에서는 지난이십이일에 삼포(森浦)검사가 부하두사람과좌등(佐藤)의사를대동하고현장에 출장하야 사실을됴사하는동시에 김근수의 사톄를해부한후동시톄는 그의 유족에게즉시인도하얏다더라

太平洋會議代表二氏今朝出發





석간기보=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에 출석키위하야 떠나는조선대표유억겸(兪億兼)김활란(金活蘭)백관수(白寬洙)삼씨는예명과가티 금일오전팔시렬차로 출발하엿는데정거장에는 지구친축의송별자가만핫더라 (사진은金活蘭(上) 兪億兼(左) 白寬洙(右))

生活難으로 縊首自殺

전북전주대화뎡(全州大和町)삼십이번디에사는최삼봉(崔三奉)(四○)은 지난이십삼일밤에자긔집에서 수건으로목을매어런덩에달고죽엇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긔삼봉은 본래가세가빈한하야 매일의생활을 다만 술장사로지탱해나가든바중도에남에게빗을어더업서상을계속하든중 불행히도돌을실패당하야 도뎌히 살길이망연함을 생각아 극도로세상을 비관하든중 설상가상으로 부부간에도종종싸움이잇든바 이십삼일에는 그와가튼 최후의길을밟게되엇다더라(전주)

小兒속여取財

중국인과자상이

성진군학남면 임신동(城津郡鶴南面臨新洞) 김두건(金斗乾)의아들 김찬락(金燦樂)(八)은 지난이십일일 오전열시쯤되어 그아버지가 궤안에너허둔돈십원짜리를흠쳐가지고 이웃중국상인왕경헌(王敬軒)의집에가서과자를삿다는데중국상인은어린아이돈속여과자들소공수고십원짜리를빼아섯는바이일이차차발각되자긔찬의부형이 중국상인에게 물은즉이가튼사실이 업다하고 어린아이가실대로 말하는것을 부인하면서 구타함으로 그부형은곳그곳경찰관 주재소에 고소를데리하야 지금중국상인을 엄중취됴중이라는데 소식을안동리여러유지는 곳그날밤 오후열시경에 당디주조장에서 결대로권고중국상인왕경헌의집물건을사지안키로 비매동맹을 일치가결하고산회하엿다 고(단천)

精神病發作으로 殺妻後에自刎

약권하는안해를작도로 찔러죽이고자긔도숫어

◇醒覺한病魔地獄

영천군청통면주지동칠십구번디(永川郡淸通面柱芝洞) 리팔봉(李八奉)(三○)은 정신의 이상으로신음하든중 마츰 지난이십삼일오후다섯시경에 팔봉의안해 리성녀(李姓女)(三一)가 약(藥)을다려가지고와서 먹으라고권한즉 그는분개하야 밧그로뛰어나가서 작도(斫刀)를가지고 와서 약을권하는안해의 뒤ㅅ덜미를찍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노코 그는또다시뛰어나가 그근방의 산으로올라가 자긔역시자혼골작이에떨어저 인사불성이 된것을 집안사람들이달려가서 집으로 메어다두엇는데 그는부참히 지난이십사일에 죽어버렷스며 남편에게약을권하다가 목을 찔린 그의처도역시 지난이십삼일오후여섯시에 세상을떠나고 말엇슴으로 이급보를들은 대구디방법원검사국 (大邱地方法院檢事局)에서는 검사가현장까지 림검하엿는바 이로인하야 그동리에서는 그들의죽엄을 애처로히생각하며 모히는곳마다 한이야기거리가되엇다더라(대구)

西伯利에大豪雨 鐵道被害甚大

당부간개통되지못한다고

외무성 (外務省)에 도착한정보에 의하면 「쎌푸네진스크」디방에는 이십일래 호우로 서백리(西伯利)철도는 유실되고 교량은파괴되엇스며 동 뎡거장부근에도 가옥의피해가 막대하야당분간 개통되지못하리라더라 (동경뎐보)

慈善會不正과 一般會員決議

두보=정례불분명(正體不分明)한 대구자선회(大邱慈善會)에서는 보기조흔간판을 부치고서 민간을속혀 일천칠백여명의 피를는돈을모흔 륙만여원을 사긔횡령한이 발각되어 대구서에서는 동회회장백석기(同會會長白奭基)외두명의간부를 인치하고 배임죄로방금 엄중히취됴하는사실로 그후동회원들은 지난이십이일 오후두시에 동회관에서 회원천여명이모혀 좌와가티결의를 하엿다 더라(대구)

◇決議事項

一、朝鮮佛敎靑年會附屬事業인大邱慈善會라하고慈善의美名으로서民衆을欺瞞하야私腹을充한白奭基外幾個人幹部及責任團體인佛敎靑年會는不正行爲의正體가發露되엇슴으로此罪惡을到底히容恕치못할것이一般社會에公開한同時에全會員의連署로서法的으로嚴正한處罰을할것

一、文簿及會財全部를引受하고不正幹部等의私財及隱匿物等을調査하야一般被害會員旣納會費

襁褓에父母사랑일코 知己의愛조차短促(一)

佳節에永埋된芳魂의哀話

세살에어머니일코가세조차빈궁 남의수양녀로길러가진고초여거

혀는련중의 가절이라는 지난음력 단오(端午)명일이엇다 칠원이넘는 옹긔시민(雄基市民)들은 남녀로소할것업시 화려찬란한 새의복을떨치입고 첫녀름따뜻한바람에 오색국긔가 펄펄나붓기는 운동회(運動會) 주위에 둘러서서 선수들의경기(競技)에 박수하는소리가 옹긔산천을 뒤집을듯 정히 환락경(歡樂境)으로 화하고 말앗슴며 만인공락의 그운동장부근을 스치어 괴로운 이세상을 등지고 소복단장한 수십명동무들에게싸여 송평 공동묘디 (松平共同墓地)로향하고 나가는 조고만상여(喪輿)한채가 잇스니 그는가련한 장춘관(張春館)의 음독자살(飮毒自殺)을 감행한 화중월(花中月)이란창기의 장의(葬儀)다 그장의의 주인공인화중월은 대체엇더한 녀자로서 엇더한사정으로 인육시장(人肉市場)에 몸을 잠그게되엇스며 또한엇더한 까닭으로 십구세란 꼿다운방년에 자살의길을 밟지안흐면 안되게되엇슬가? 그의 내용에 잠겨잇는 사정을들추워 볼때에도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불합리 한사회제도의 일면상(一面相)을 녀히엿볼수 잇는것이다 그는원래 경상남도마산부 성호동사십륙번디(馬山府城湖洞四六) 에본적을둔 김개원(金介源)이란사람의둘째딸로서 그의일홈은 복시(福時)엿섯다 그가아직강보(襁褓)를 버서나지못한 세살먹든해에 그의어머니는 젓먹는딸 복시를마커기르지못하고 그만불귀의 객을 지엇섯다 어머니의따뜻한젓가슴을 다시만지지못하게된 어린복시는 발서이때부터 맹정한 세상사람들의 얼음가티 찬손에서이리굴고저리굴며 길리워 내지안흘수업섯다

얼음가티 찬손에서이리

어린복시

물자긔의손으로 먹고살기가 어려운그의아버지 면안될 불행한운명에 씌치엇든것이다 그의아버지는 원래넉넉지 못한살림에서 주부(主婦)까지 일코 또한그의초종범절에 가산을탕진하다싶히하야 두아들과 딸의사남매를 거나리고 길가에서방황할디경에까지 일으렷다 이러케되고보니 자식들도 귀하지 안흔것은아니나 도저히오래 길러내일재책이업서서 눈물을먹음으며 어린복시를 이집저집에 의탁하게되니 가련한 이소녀는 따뜻한부모의사랑은 조금도 맛보지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운데서 어언간 일곱살이란 나히를맛게 되엇다 행인지? 불행인지?이 때에 마산만뎡(馬山滿町)에사는야소교장로(耶蘇敎長老)리모(李某)라는사람이잇서 이어린 복시소녀의 사정을 매우가긍히 녀겨 자긔집에다려다가 거두워 기르며수양딸을삼으매

그로부터

어린복시의신상은 그전보다 매우편하게되고 또한 그의친아버지도 비로소맘에서 그를 멀게되엇섯다 그의양부모는그를 극진히 사랑하노라하엿스나 그는한살두살 더먹어세상물정을 깨닷게되매 친부모의사랑을 더욱늣기게되는 동시에 세상이 쓸쓸하고도 적막함을늣기게 되는 의식(意識)하게되엇든것이다 그래서 엇던때는 그집어린아이를 둘러업고 어린가슴을 쏠이며사당업는중 유한곳을차저가서 도라가신 어머니를생각하고 남몰으는눈물을 움켜던진 일도한두번이아니엇다한다 그러나 주일날이면 례배당에가서 찬송긔도하는 것으로 무한한위안을 엇고평상시에는 어린아기 보는것으로일을삼아 고히고히 자라낫든데 덧업는세월은발서복시소녀로 하야곰열여섯살이란꼿다운년광을맛게하엿다 꼿피고새우는그해봄어느날이엇다 우연한긔회로례배당에다니는엇던청년을맛나보게된것이동긔가되어 가지고그의

어린가슴

에서는무엔지 몰을 불길이타오르기 시작하얏다 아! 이불우(不遇)의 처녀에게도 첫사랑의새싹이 돗기시작하얏다 그러나 이가련한처녀 이불우의소녀는 과연 이첫사랑의 승리자(勝利者)가되고말것인가? 아니다세상은 용서치안는다 불합리한사회제도는 그의사랑생활을 결코 허락하야주지안흘것이다(계속)

외상에졸리다가 飮毒한富豪靑年

졸리기실혀약먹고죽고자

◇浪費끄테생긴悲劇

경북 안동군임하면 내압(安東郡臨河面川前洞)에잇는부호의아들김모(金某)라는이십사세된청년은 지난이십일밤중에 안동군안동면(安東郡安東面)동부동(東部洞)류색(柳色)이라는기생(妓生)의방에서 쥐잡는 약을먹고자살을기도하다 가남의눈에발각되어 목뎍을 달치못하고구됴를바다 생명에는 아모관계가업게되엇다는바 그청년이약을먹고 자살하고자함은 얼마전부터 집을떠나 전긔기생의 집에서동거를하는중 오천여원의 금액을 소비하얏슴으로집안에서는돈을잘주지아니하고만치도안흔외상에나날이졸리든끄테세상을비관하고죽고자한것이라더라(안동)

酌婦노릇실혀 飮毒自殺하려

평북 곽산(郭山)역전장 춘관이란 료리집에는 지난이십삼일아츰에 작부로잇는홍순옥(洪淳玉)(一九)이라는 녀자가 자살을하고저 양잿물을먹고 죽느니 사느니하면서 일대참극이 일어낫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알아본즉 원인은아즉 알수업스나 목뎍하얏다가 뜻대로 되지도안는중주인측에서는 영업이 뜻대로되지아니하야 수일전 부터경의선운뎐역(京義線雲田驛)으로갈준비를 하는데에 전긔홍순옥은 목뎍도달치못하고 또다른곳으로감을비관하야그와가티지난이십일밤근처어느녀인에게 돈십전을 주어량잿물을 사두엇다가 틈틈타서먹고 고민하는듯하다는데 지금선천인제병원(宣川仁濟病院)에서 치료중이나생명이위독하다하며자세한원인은후일발표하리라더라(곽산)

處女誘引逃走

원산부석우동(元山府石隅洞)백구십오번디의장룡구(張龍九)(三四)란자는 지난오월오일경에 강원도이천군(江原道伊川郡)출생의향선만(黃仙萬)(二二)이란처녀를 감언으로 유인해다가 부내장촌동(場村洞)에서 술장사 하는 김준수(金俊守)에게일백오십원에팔아먹고 도망한것을 원산경찰서(元山署)에서탐지한바되어 목하범인을 수색하는중 이라더라(원산)

高麗釀造協會決議

고려양조협회(高麗釀造協會)에서는 지난이십사일 그회본부내에서 뎨륙회 리사회를열고아래와가튼결의가잇섯다

一、理事 趙昌元氏와同李善鎔氏를副會長에推擧함

一、全鮮的으로問題가되어잇는各道評議員配定件은大規模의工場을所持한咸南과平南에서定員의三分之一을推薦하고殘餘三分之二는兩道를控除한十一道에서各配定推薦하기로함

一、朝鮮青菓協會創立事務所를本協會內에두자는要望이有함으로此를總許하기로함

에依하야配當일것

一、在京事務를執行키爲하야執行委員若干名을置할것

水利組合場風波로 郡守外官員逃躱

물의부족을보충키위하야 축보하는데경비부족으로

道廳讓步로結局解決

전남장성군황룡수리조합(全南長城郡黃龍水利組合) 분규(紛糾)사건에대하야 지난십삼일에 전남도농무과장(農務課長)이현장에출장하야 실디를답사한후 장진보(長津洑)를다시매축케하야 공사비(工事費)이백원을 지출케 결정하엿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십팔일에도텽으로부터온 소천기수(小川技手)와 동수리조합공사감독기수와 동군수김병수(郡守金秉壽)씨외서무주임(庶務主任)토목계원(土木係員)수리조합서긔등이 현장에출장하야 공사상황을보다가 돌연공사장은 수라장이되고 관리들은 일변도망을하는등일시는 대혼잡을 일우엇다는바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조합원들은 수리조합과분리(分離)하야 예전대로 보(洑)를매어농사를하겟다고하야보를매로수축하며 공사비가 부족하다는말이 분분할동시에 동군수는 긔어히이백원의 예산으로보충을하라하엿스즉 그대로 쌋는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을하자수백명 조합원은 일시에긴장되어살긔가충텬하여 집을보고도텽으로부터온 소천기수와 군수는몸을피하야 돌아가고 조합원은검운옷입은자는모조리죽이라고고함을질으며 달려들어 일변관리들의 양복자락을 웅켜잡고 돌이버는 등 일시는 심히형세가 불온하야짐으로 군서긔는 물방아집으로 들어가나 아니가나 탈아가보자는등조합의강림(岡林)서무주임김형운(金炯運)씨와소천기수는 몸을피하야 전남도텽으로가서 현황을보고하고 그이튼날십구일에도 불고하고지사내무부장(內務部長)농무과장(農務課長)들이 등텽(登廳)하야 협의한결과 보축공사비일백오십원을더지출하기로하고소천기수는신변이위태하야 감독중지하야 익일에서무주임이돌아와현장에나아가서 공사비 더바다옴을설명하고 공사는완료하게 하라하야이십일에 공사가겨우 완성(完成)하엿다는데 수량(水量)은 수리조합수도(水道)의수량보다 배나 더만타하야장신보좌인들은서로성공(成功)을자축(自祝)하며 돌아갓다는바도당국으로서도이러한실제를반기신유하야 량민의소동을일으킨도매우생각할데이아닌가하야일반은소위기술자들을 매우의심한다더라 (장성)

移秧時에奪耕한 金昌泳의暴行

농무방해로소작인을고소

一般의怨聲이漲天

장성군삼서면류평리(長城郡森西面柳平里)에서는 수일전부터소작인과 디주사이에 소작료관계로 일대비극이 연출되엇다는바 이제그자세한 내용을탐문한바에의하면 령광군군남면 동간리(靈光郡郡南面東間里)에거주하는 김창영(金昌泳)의 소유인답이백여두락이잇서 십여명의 작인들이 경작하야 오든바 김창영은 다른디주보다 사회상을더바다왓슴으로전긔소작인측에서는 억울을 금치못하야서 로리협한 결과 농민조합을설립하얏더니 김창영은 농민조합이설립되고보면 자긔원의로 힐수 업슬가하야 소작료를 전년보다 매두락에 오두이상식 더바치라하야두차교섭하얏스나일향듯지안코자긔가 경작하겟다고 친척수명을그리로다잇는곳으로보내어 이양이밧분 이때에 이작을하얏으로소작인들은 살수가업서 걱정으로지내며 다소협난을 하얏더니 김창영은 소작인들을농무방해 (農務妨害)로걸어 고소를데긔하자 마츰그논에 심으려고하든모자리를 낫으로비어 버렷슴으로 이것이동긔가되어 일반소작인들을 모조리가두고 취됴하는중 이라더라(광주)

巡査教員面職員의暴行 善山面民大非難

강간구타등이무소부지

監督官의責任은安在

현하조선에 이종삼종의 모든압박과 커해를 바다오는나날이신문지를통해 볼지라도 한둘에그치지안는것을 짐작 할수잇는바경북선산군(慶北善山郡)에서넘어들은 보도 하건대동군해평면(海平面)면서긔 김성태(金聲泰)(二三)는 얼마전에 동면도산동(桃山洞)어떤젊은녀자가 친정에가느라고 동군나멸덩(羅滅嶺)을넘어오든중 달려들어신톄를 수색하고 강간을 하야금수의 욕심을 채웟슴으로 불의에욕을당한 녀자는 그곳주재소에 고소를하엿스나 동주재소에서는 이것은 면서긔가한일이니 면장과 타협을하라하고 고소를 수리치안흠으로 부득이 면장을차저보고 그만행당한 전말을 말하얏스나 면장은 「설사 관리가잘못할지라도 백성이 감히고소가 무엇이냐」고위협도하고 소무커가되어 그대로 돌아갓다하며 동군고아면(高牙面) 주재소순사 안병년(安炳年)(三三) 은동면항곡동(項谷洞)변모(卞某)의처가젊고어엽분것을항상탐내다가 몃칠전에 그집가족이업고 그혼자 잠든틈을타서 침입하야 금수가튼욕심을 채우려다가 발각되어 그집안사람들에게 만흔매를맛고 전긔안순사는 방금선산공의에게치료중이라하며피해자는방금김천지청에다가가택침입강간죄로고소를제긔중이라고 하며 동군해평공보교(海平公普校)훈도(訓導) 리종을(李鍾乙)(四二)은 원래평판이아조 조치못한자로 지난이십일일에 술을먹고 동면락성동(洛成洞)리춘식(李春植)의술집에서 정모(鄭某)를부고히 욕설하고 따려의복을찬산이 쉬즌후그동리사람을시켜서 화해를청하엿스나 전긔정씨는 그런누리한자와는 화해를거절한다고 선언하고 떠나려할지음에 그동리 불량자들을시켜 비상한협박을하도록하고그보수로 리훈도는 술을사서먹엿다는데 전긔정씨는 그면주재소까지 가서 보호를어더가지고 그날밤은 그동리집에서숨어자고 그이튼날새벽네시에 돌아가서 곳곳 행죄로 고소를할터이라고한다는데참으로선산디방의인민은그들의횡포와만행으로비난이만타더라

八年을言渡

텰원강도공판

텰원군텰원면중리(鐵原郡鐵原面中里)에거주하며 일뎡한직업이업는리시돌(李時乭)(三三)과동리에서 음식뎜하는 정모의집에고용으로잇는 최두수(崔斗洙)(三二)의두명이공모하고 동군동송면대위리(東松面大位里)에사는림모(林某)가 지난달 오월십륙일밤 텰원장에서 소판돈팔십오원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것을 인적이고요한 대위리관음교(觀音橋)부근에서 흉긔로위협하고 팔십오원을 강탈도주한 사실이발각되어 텰원경찰서에 톄포되어 그동안취됴를 마치고 공판에부쳣든바 지난 십구일에 경성디방법원텰원지텽에서 각 징역오개년의판결을 바닷섯는데 두피고는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얏다더라(텰원)

萬粉屋의擴張

중학동 (中學洞)에 새로생긴 만분옥(萬粉屋)은 그동안 일반의호평을 만히엇든바 더욱이만도인사의 후의를 저바리지아코커설비를 충분히하는동시에 가격도 일층저렴하게 수응한다고

澁澤邸에壯漢侵入 金錢強請타逮捕

단도로경부보를찔르고 격투후에비로소톄포해

이십오일오전열한시경에 동경시외롱천(瀧川)에 잇는삽택영일자(澁澤榮一子)의집에는두명의장한이 침입하야 금전을강청한다는 급보를접한 롱천경찰서에서는 삼택(杉澤) 경부보이하두명의 경관이급히달려가서 톄포하려한즉 그두명의장한은품속으로부터 면도를꺼내어들고 삼택경부보를 찌르고 서로격투한 결과드되어 톄포되어 취됴중인바 어느계통의 주의자인지는아즉판명되지못하얏다 더라 (동경뎐보)

斷崖에서 自働車墜落

지난이십삼일 오후세시경에 경남창녕 자동차회사(慶南昌寧自働車會社)경남일백삼호차는 손님을태워가지고 전긔시간에 대구(大邱)를떠나 창녕(昌寧)으로향하든중 달성군 달서면 내당동(達城郡達西面內唐洞)회생병원(回生病院) 압도로를 지날때에 마츰압흐로 하마차(荷馬車)가옴으로 그를피하려다가 운전수권구현(運轉手權九鉉)은 놀라서 급히다른방면으로 운전하야 낭떠러지에 떨어저 자동차는부서젓스며 두명의중상자를 내엇스나 생명에는 별관계가업스며 운전수도경상을 당하엿다더라(대구)

僧房悲曲

(禁無斷撮影興行)

獨鵑 作 羅雲奎 撮影監督 [42]

마계【魔計】(九)

병석에누은채로 김창호와 초면인사를마친뒤 영일은 은숙의부친이 밤중에은숙을차자나슨 사정이궁금하엿다

「며님께서 여긔나오신다고댁에서나왓습니까?」

「집에서는 여긔나온단말도업시 그저어듸좀다녀온다고 나왓는데 자동차부에서밝아보니 여긔를나왓다구 그래서……」

창호는 말끗을흐리고 영일을바라보앗다 영일은 김창호가은숙의부친이줄을알때 특별히 존경하는마음이생겻다 초췌한얼굴에 우숨까지띄우고 자긔가은숙이와 남매와가티 지내는터이라 동안은낫나지도못하는날이며 자긔가병이나서 눕게되매 보고싶흔생각이나서 자동차 운뎐수편에 명함을주어들여보낸 이야기를 친친한말솜씨로 간단하고 순서잇게하엿다

영일의 이야기를들은 창호의마음에는 조고만의심이 떠올랏다

「자긔에게 무슨빌이나발로이 숨겨본적이업는 은숙이가 엇지하야 절의남매까지하고 이절에도여러번나왓드라면서 이때까지 한번도그런날이 업섯슬가? 전후사정을 털부어보아 오늘도 분명히 여긔를오려고 나슨모양인데 제어머니에게도 가는곳을 분명히 말하지안흔것은 반드시 이곳에만은 부모인 자긔들에게도속이고다니것이아닌가? 그럴리유가어듸잇슬가?」

귀한보배를 가지니는 남이여볼것을 두려워하고 애달분사랑은 쌋고쌋는 빗데이나는것이다

그러나 창호의 이의문은잠간실아지고 다음으로는 그것과는다른의미에서정말이 검은구름처럼피어올랏다

「그것은엇지되엇든지 대관절 이절로 나왓스면나왓지 여긔도오지안코 엇지하야 그런일을당하엿슬가?」

이 풀래야풀수업는 커다란걱정은 순적순적이부터서 떨어지지 안햇다

창호는 북바치는걱정을 참지못하야 비밀에부처두련든 오늘일을 대강이야기하엿다

「우리은숙이와 그러케도친분이잇는터이라니 말슴을 합니다마는 은숙이신상에 큰괴변이생겻구려!」

창호의말을듯는 방안사람들은 눈을 동그럿케쓰고 다음에나오는말을기다렷다

창호는 말할대신에 은숙의친필인 오천원을청구하는 편지를꺼내어 영일에게보엿다 차돌가티 냉정하고침착한 영일이도 이때만은 과연놀랏다

「이게웬일 입니까?」

「내나알수잇소 그래서이밤에 나온게아니요」

「그래엇더케됏서요 대관절어 편지는 누가가지고왓서요?」

「원낫모를 양복입은청년이가지고왓드군요 그래할수 잇습되지요 그자의말은 할으로은숙이까 돈은마련해주어서 몰려보냇 돌곰게 몰려보냇다 합되다마는 일을당하고난뒤에 엇던친구가 자동차타는걸 보앗다구해서 자동차부로 가물어보앗더니 자동차를타구 여기를 나왓다구해서 궁금한생각에 그친구하구여긔까지 나왓는길인데 그친구는 개가여긔 안온것을보구 어데로 종차자본다구 지금버려 갓는데 ……」

「비? 동행이 또 반모게십니까?」

「커ㅣ재동사는 리필수라구하는친구와가티 나왓지요」

두사람의 대화(對話)를 엿해서 듯고안젓는 명진은 빨안간미친사람처럼 소리를질넛다

「재동사는 리필수란니!그부자놈말슴입니까? 그악마놈!」

이러케 불으짓는 그의눈은독을 은 맹수(猛獸)의 눈처럼타올랏다

방안사람들은 일체히명진을 바라보고 그미친듯한표정에 놀랏다

「그래로ㅣ 뎌군을아시우」

창호는 종용히물엇다

「그악마놈 그놈은이파준입니까」

필수의 식컴난수다이 그의무릅에서 떨렷다

「아마잘못아시나보우 그이는 그런이가 아닙니다 상당한교육도바든이고 지금교육사업에 종사하는이고 사회의명망도 상당히잇는 청년신사인데요」

창호는 명진에게 대구를하고다시영일을보고 오늘 그화급한정우에 오천원이라는돈도 필수에게서 취해보냇다는이야기를 간단히 하엿다

「흥 오천원 흥오천원 그악마가 오천원을내놋다 모를일이다 흥오천원」

명진의코는 조소(嘲笑)에 울룩이엇다

김창호는 명진의태도가 불쾌하다는드시 얼굴을외커편으로 돌리고 말대답을아니하엿다 이것을 본영일은긴장하고불안하여서명진에게 주의를시켯다

「명진씨 그게무슨말입니까 조심하우」

명진은 영일의주의로 무슨힘을어든듯이 입을꼭다물고 침묵을깨첫다

韓明鍊……羅雲奎